“미디어 호감도 상승 긍정적… 불교 문턱 더 낮추자”

미디어 속 불교 열풍, 전문가에게 묻다

인간성 필요 시대, 불교에 주목
박람회 등 체험성 강화도 한몫
미디어 내 불교 오류 적지 않아
모니터, 대응 종단 조직 필요해
니즈 파악해 불교 신행 유도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혜공 스님


법장 스님


김응철 교수


석길암 교수


최원섭 연구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힙한 불교’ 열풍이 이어질 모양새다. 유명 아이돌이 추천한 불서는 서점에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곡에 불교적 메시지와 이미지를 차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반야심경〉 독경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장면이 나온다.

그간 미디어 속 불교가 고즈넉 산사의 수행처이거나 등장인물들의 장례식 공간으로 주로 활용됐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해 미디어 속 불교 이미지의 변화와 대중적 호응의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인간성 회복이 필요한 시대, 대중들은 불교와 고전에서 그 길을 찾고 있다고 봤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이 자신, 그리고 마음(정신)에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속에 불교적 가르침이 유의미하게 다가서고 있다”면서 “다시 말하면,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불교적 사상, 가르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진단했다.

동국대 책임 교수 법장 스님은 “작금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이 희미해진 시대이여서 인간성 회복에 많은 관심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도서와 고전에서 길을 찾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불교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하며 연기적 삶을 추구한다. 과학이 극으로 발전한 시대에 불교는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킬 터닝 포인트를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고 봤다.

‘보는’ 불교에서 ‘체험하는’ 불교로 전환된 것도 2030세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하는 요인이 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젊은 세대들은 ‘체험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저 ‘보는’ 종교였던 불교를 템플스테이, 불교박람회 등으로 ‘체험’할 수 있으니 불교를 향한 긍정적인 시각이 증가한 것”이라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의 템플스테이 체험 영상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작가, 방송 PD, 기획자들이 불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불교가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석길암 동국대WISE캠퍼스 교수는 “종교적(불교적)으로 엄격한 의례와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불교·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세대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는 불교를 기성 종교로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의 하나로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호응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세대별 니즈를 파악해 불교를 신행할 수 있는 넥스트 스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혜공 스님은 “잘파세대들이 갖는 불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교에 대한 호감인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유의미성인지, 아니면 종교적 신앙적 의미로의 접근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불교가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일단은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법상에 올라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서 눈을 맞추고 그들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현재의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신심이 없을 수 있지만, 관심을 갖게 해 신앙토록 해야 한다. 관심이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문화 지도력이 있는 불자를 육성해서 ‘불교 인플루언서’로 키워야 한다”면서 “불교를 통해 얻은 치유의 경험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나누게 되면 이는 전법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를 보게 된 대중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신행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섭 연구원은 미디어 속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가공·확대하는 미디어 대응 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원섭 연구원은 “제니의 ‘ZEN’ 뮤직비디오의 부엉이에서 불교적 메시지를 찾는 해석들이 SNS에 있다.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불교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제니의 ‘ZEN’에 담긴 불교적 메시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면 불필요한 오해도 줄이고 이슈도 될 수 있다”면서 “기존 미디어 소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탄신 98주년 다례재

1월 30일 안양본원서 5층 법당서
500여 대중 참석, 대행 선사 기려
혜수스님 “선사 가르침 따라 정진”

한마음선원을 창건하고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탄신 98주년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월 30일(음력 1월 2일)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대행 선사 탄신 98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전국 지원장스님과 문도스님, 안산 감로사 주지 길산 스님, 이동복 신도회장·박종수 명예신도회장과 신도회 임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이사장 혜수 스님의 헌향·헌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본원·지원 신도 회장단 등의 헌화, 대행 선사 영상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대행 선사는 영상법문을 통해 업식을 쌓지 말고 초발심을 내어 부단한 정진을 할 것을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대행 선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 때는 자기가 산대로 살게 돼 있다. 독하게 살았으면 독사가 될 것이요, 남의 것을 탐하면서 돼지처럼 살았으면 돼지가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으라고 한 것이다”면서도 “마음공부하는 스님들에게는 선업도 놓고 악업도 놓으라고 한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대행 선사 영전에 헌다를 하고 있다.

악업을 지으면서 선업을 지을 수 있고, 선업을 지으면서 악업을 지을 수 있어서다. 마음공부할 때에는 무릇 양변을 모두 놔야 한다”고 설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 따라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는 주인공을 믿으라고 늘 말씀하셨다”며 “선사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공을 믿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가르침대로 주인공에 맡기고 정진한다면 우리는 대자유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한해도 대행 선사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이동복 신도회장은 마음의 편지를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맹구우목(盲龜遇木)의 희유한 인연임을 알고 끊임없는 수행정진을 다짐했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이날 대행 선사 탄신 다례재에 이어 합동천도재와 촛불재를 봉행했다.

안양=신중일 기자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수현 스님 원적

1월 25일, 세수 86세 법납 71년



불교 사회복지를 선도하며 한국 비구니 승가를 이끈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안산 수현 명사〈사진〉가 1월 25일 오후 안양 안흥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1940년 9월 3일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난 수현 스님은 15세 되던 해인 1954년 법주사 수정암에서 남석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그 해에 대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1966년 동학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그 해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뒤 동국대에 진학해 학문에 전념했고, 197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1977년 조계종 중앙포교사로 위촉된 수현 스님은 사회복지를 통해 부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1981년 조계종단이 운영하는 최초의 유아원인 종로구 낙산어린이집의 원장을 맡게 된 수현 스님은 1986년까지 원장으로 재직하며 낙산어린이집을 한국 최고의 모범 유아원으로 만드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수현 스님은 1997년 개관한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며 군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을 책임졌다. 안양시 정화위원을 비롯해 서울 목동청소년회관 사무국장,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 종립학교 관리위원, 비구니 계단 위원을 역임했다.

이처럼 불교사회복지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큰 족적을 남긴 수현 스님은 2019년 조계종단 비구니스님에 대한 최고 법계인 명사법계를 품수했으며, 통일가사추진위원장 맡아 종단 가사 체계를 정비했다. 2021년 4월 전국비구니회 수석 부회장에서 원로의장으로 추대됐다.

수현 스님은 평소 “바라이죄를 범하면 승려로서 목숨을 마친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승려의 본분사를 찾기 더욱 어려우니 세상이 혼란할수록 계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한다”며 지계(持戒) 정신을 강조해왔다. 임은호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5학년도 학점 은행제 신(편)입생 모집안내

(교육부 학위 인정 교육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전형일정 | 2025년 1월 1일 ~ 2월 28일

■개 강 | 2025년 3월 첫째주 3월 4일 (화요일)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 향 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